

제 219 호

연중 제 4 주일

1977. 1. 30.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잊혀진 형제, 자매들

구라(求癩) 주일을 맞이하여

김진석 신부

우리 주변에는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 그들은 “문둥이”, 또는 “용천백이”라는 별명을 받은 “무서운 사람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들”로 여겨져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시야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나환자들도 사람인가?」하고 스스로 물어보자 물론 대답은 정해져 있다. 그들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 하느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인간다운 생활과 인간다운 대접을 우리와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은 열번째 맞이하는 구라 주일이다. 1954년 「라울·홀레르」씨에 의해서 제창되어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이 세계 나병의 날로 정해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1월부터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0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나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스위니」신부님의 가룩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를 창립하고, 1968년 주교회의에서 정식 승인을 얻은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속에서, 또 신체적 불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불우한 형제 자매들을 신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돕는데 최선을 다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나환자들을 많다.

그러나 나병은 퇴치될 수 있다. 나병 환자들은 외면하고, 만나면 봐 겁을 내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자. 그들을 치유하자. 나병균의 진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과학이 담당해야할 일이지 모른다. 그러나 나병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나병환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밖에 없다.

인간은 상호 유대 관계와 연대성을 지닌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혼자 고립되어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행복이란 언제나 상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 나병환자들이란 아무런 죄도 없이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나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진정한 형제적 사랑에서 기인한 신행은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우리는 「다미안」신부님과 같이 헌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으리라”(마태오 5.7)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자.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요한 1서 3,18)

<중앙 전주교회 보좌 신부>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월분 전화요금은 76년 12월분 도수로와 77년 1월분 기본료(기본도수 100도 포함)가 합산 조정되었으므로 종전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찰하시기 바랍니다.」(××전신전화국장)

「전화료 횡포」, 「채신부 부당이득 11억원(11억 3천3백 40여만원)」, 「울린값 받으면서 100통화 면제는 무시」, 「기본요금이 72년 7월 1일자로 3백원에서 5백20원으로 인상됐을때도 75년 6월부터 기본요금을 5백20원으로 징수했다는 것」, 「기본요금만 앞당겨 인상정수한 조처는 타당성을 잃고 있으며 징수방법등 합법적 규정으로 위장한 산술놀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이상 朝鮮日報 1월19일자)

「채신부, 부당 전화요금 반환키로. 2월분 고지서에서 1,000원 일률 공제」(朝鮮日報 1월20일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채신부의 환관계자 말대로 「채신부 내구인 전신전화 규정」에 따라 산술놀이를 벌여 11억원 이상의 부당요금이 징수될뻔했다.

1,000원씩 2월에 공제해주겠다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짊짊하다. 그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75년도 의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래도 전화를 가질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 참으라는 말인가?

다행스러운 일은 그래도 국민들 여론이 모아지고 신문이 보도를 하고, 그것이 당국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국가에서 여론이 존중된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하나의 새해 소망을 빌어본다. 여론이 존중되고 언론의 자유가 활발한 새해가 되기를 두손 모운다.

숲 정 이 산채



새로운 푸르실리스타 탄생



人 間 의 존 엄 과 교 회 (2)

지 학 순 주 교

3. 인권(人權)은 하나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관에 끌려가거나 심문을 받았거나 나아가 재판을 받았거나 매를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끌려가고 심문받고 재판받고 매를 맞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뒤늦게나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을 지키며, 희망을 잃고 실의에 잠긴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인류공동체에 맡겨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유린은 공동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의 인권 침해는 곧 전체 인류의 인권 침해이며 어느 한곳의 인권문제는 바로 범세계적인 인류 공동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권에는 네댓 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 돼지처럼 혹사당하다 개, 돼지처럼 쫓겨나도, 자기 양식에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모욕적인 굴종을 하면서 남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앉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참으로 가련하고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76년 1월 “헬싱키 정상회의의 결과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항의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즈음은 모하케도 솔제니친을 추방한 소련의 인권문제는 떠들어 거론하면서 이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위협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솔제니친을 즐겨 인용하는 사람이 김지하의 인권문제는 더욱 가혹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즉 인권선언 28주를 맞이하는 지난 금요일 3·1절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된 신부님들 목사님들 김대중씨 이문영 교수등 11명은 하룻동안 한국의 인권문제 특히 김지하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인권과 자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단식입니다만 인권유린이 권력과 직결된 구조악(構造惡)으로부터 나오는 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작년 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이땅의 인권문제를 외국에 알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의 이웃이 서로 관심을 갖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애기가 조금 빛나갑니다만, 안의 사정이 밤에 나가는 것을 당국은 법으로 막습니다만 동시에 밖의 사정이 안으로 알려지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국제 브로커 박동선 등에 의한 미국 정치인들에의 뇌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신문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 사건을 국내에서는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상을 하루속히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즉 “부패한 권력은 스스로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부패시킨다”는 이치를 깨달아 다시는 이런 나라 망신이 없도록 해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진행되는 “검은 외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과하는 것은 나라 망신이요, 잘된다 하더라도 야합(野合)에 불과합니다. 점차 세계는 좁아지고 있으며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혹은 저 사람들의 나라의 인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속의 인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인권은 하나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막겠다는 생각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하겠다는 생각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력이 인권 탄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사용할 때 그 말은 한갓 허구일 뿐입니다. <다음호에 끝>

한 말씀 드립니다.

「이팔 청춘 열여섯 살에 이사 몇번 하다보니 스물한살이 되어서 시집을 가는구나」.

풍만지같은 소리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신약성경 저자 마테오, 마르코, 누가, 요한을 외우기 편리하도록 마마누요(엄마가 누구요?), 각 복음의 장수는 마테오 28장(이팔청춘), 마르코 16장(열여섯살), 누가 24장(이사 몇번), 요한 21장(스물한살)이니 위와 같이 외운다면 평생 안잊혀지겠지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서 백원짜리 한 장 주신다면 보답으로 가톨릭시보 2주일분을 보내드리죠. 사실 이 이야기는 가톨릭시보 1월16일자에서 옮겨보았습니다. 어때요, 지보 안보시겠어요?

두루두루 평안하세요.

가톨릭시보 전주지사 범띠도 드립니다.

※시보 구독료...1주일에 50원, 1개월에 200원

※구독 신청할 곳...본당 사무장님께나

가톨릭센터내 가톨릭시보 전주지사(전화 33498)

※신청주시면 직접 배달하거나 정확히 우송하겠음.

전자장판 · 믹사(OSTAR) 대아 전기 전복대리점
약탕기(맥스웰 사이폰) 전 주 대 리 점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 양지쪽 □

구라사업 현황보고

엠마 프라이징거



1월 30일은 제10회 구라주일입니다.
1968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승인후, 해마다 많은 사랑과 기도와 희생 감사합니
다.
참고로 작년도 당회의 주요 사업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각 기관별 사업보고
는 일체 제외)

1. 의료사업
국내 47개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전국 93개 정착장을 대상으로 12,000명을 진료.
396명에게 각종 수술 지원.
무의무탁한 불구환자 13명 수용 보호.
2. 교육사업
가톨릭계 40개 정착장에 신앙지도, 가족계획지도, 정신교육, 영농기술교육 실시,
287명의 자녀들에게 직업보도 실시.
3. 자립사업
40개 정착장에 1억3천만원의 외원으로 자립 지원.
4. 계몽사업
기도와 계몽과 희생을 겸한 구라주일 행사.
각종 매스컴 이용.
계몽용 팜프렛 제작 배부.
작년도 구라주일 현금 8,376,750원정, 감사합니다.
5. 후원회 육성사업
증가일로에 있는 릴리(lily,百合)會 200여개 기관에 13,000여명이 참가 확대되어 가
고 있으며 1976년도 성금만 9,580,583원정임. 머리숙여 뜨거운 감사 올립니다.

현금 봉피는 나병계몽을 겸한 것이오니, 혹 사용하고 남으면 구라주일이 끝난 후라
도 교우들이 보고 나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병퇴치를 위한 가이드 「나병은 낫는다」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혹 필요할시 연
락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으며, 금
년 구라주일 행사도 성공리에 이끌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977. 1. 7.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장)

요십이 (183) 김병오 

60년대

구르실료를 받으세요

바빠서 못받았요!

70년대 초반

구르실료를 받으세요

신부님이 사정하니까 받았요

70년대 후반

구르실료를 받게 해주시요

80년대

구르실료를 받게 해주셨오? 못해주셨오?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교버)

원아모집, 원아모집, 원아모집

자격 : 만 5세 ~ 만 6세 어린이

성체유치원

주소 : 전주시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화 : ②8408, ②3231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 5 4 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크

미미제과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 후지칼라 특약점

777 칼라사장

◇ 정읍극장 앞 ☎ 4274번
오경근(박오로)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 6 2 1 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②8548)

공지사항

1. 김 윤채(루시아)양, 1월 26일부터 **슌정이 편집실 근무**
2. 성체 수녀회 첫 서원식(2월 2일<수> 오전 10시, 성체 수녀회) 교형 자매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혼인 문제 상담일(2월 3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4. 진복 의료 조합 총회(2월 5일<토>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회의실)
5. 레지오마리에 연수회(2월 5일<토> 오후 4시-6일<일>, 가톨릭 센터)
6. 가톨릭 농민회 정기총회(2월 7일<월> 오후 2시-8일<화>, 가톨릭 센터)
7. 신학생 학부형 공동체 목상회(2월 10일<목> 오후 2시-12일<토>, 가톨릭 센터)
8.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본당·공소 합동, 2월 20일<일> 오후 2시-24일<목>, 가톨릭 센터)
9. 금주의 방송안내(서해방방, 매일 밤 11시35분 「사색의 오솔길」, 엄기봉신부 방송)
10. 중·고등 학생회 교리경시 대회(2월 20일 오후 2시, 각 본당에서)

범위 : 마르코복음, 교리서 3, 4편, 기도문 암송

(중안)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방지거 3회 피정...31일(월) 10-오후4시, 성당에서
2. 마리아 합창단 월례회...2월3일(목) 10시반
3. 주일학교 교리교사 정기총회 : 오늘 오후 2-5시
4. 주일학교 개학 : 2월 5일(토) 오후 3시
5. 중앙신협 정기총회 : 다음주일 오후 1시반, 성당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빠짐없는 참석바람
 6. 상가 관리위원 : 위원장 이복석
 김병구, 김정생, 김한영, 김형택, 양학도, 오중원, 이두만
 7. 사도회 월례회 :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8. 병자 성사 및 환자 봉성체 : 31일(월)-2월5일(토)
 사무실에 신청바람
 9. 사도회 사무실의 새일꾼, 이강자(로사)
 10. 성심부녀회 월례회 : 2월4일(금) 어머니 미사 후
 11. 성당의자 방석 기증자 : 오재희, 양학도, 이복석(각 1만원) 김병구, 엄경숙(각 5천원), 오중운(2천원)

☆이중남(요한)군과 조현숙(테레사)양
☆지난주 봉헌금 120,50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병자 봉성체 : 2월3(목)-4일(금) 사무실에 신청바람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임원 및 반회장님들 꼭 나오세요
 3. 견진성사 : 2월말까지 소정양식대로 신청바람 세례증명서 1통 지참바람
 4. 신용조합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11시반) 조합원은 통장을 가지고 꼭 참석하세요
- 축 결혼(2월 2일<수>12시...저녁미사 없음)
이정기(아우구스띠노)군과 김여주 양
다음주일 12시...정주은(토마스)군과 강남옥 양
□축 회갑(1월31일) 허채석(바스티아노)
11시미사(새벽미사 없음)
☆지난주 봉헌금 43,15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L.M 및 예비신자 단합대회 : 10시 미사후
 2. 축! 푸르실리스타 탄생
김순자(루시아), 장은순(세시리아)
 3. 사도회 임원회 : 2월 5일(토)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29,660원, 감사합니다.

(슌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중책을 맡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령회 회장 이강노 진부1구 회장 김기순 진부 2구 6반회장 김상임
2. 오 헤레나 여사, 누갈다 유치원에 피아노 1대 기증
누갈다의 치명정진을 받으신 오여사께 감사합니다.
☆지난주 봉헌금 2,1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함철
보좌 신부 한기윤
사도 회장 김유석

1. 부활 영세 예비자 등록 신청
 2. 어린이 첫 영성체 : 오늘 10시 미사 때
 3.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반
허원 안한신 형제들에 대한 허원식 있음 (수도복지참바람), 사진촬영있음
 4. 주일학교 교리교사들 어린이 가정 심방
 5. 오늘은 교무금(1월말) 분납주일
- ☆지난주 봉헌금 116,348원, 감사합니다.
6. 본당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사시는 형제들은 해당된 관할구역 성당으로 교적을 옮기시고 신앙생활하심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전국 본부에서 시찰 : 오늘 공식미사 후
 2. 초 축성 : 예수 봉헌 축일(2월<수>) 저녁 7시미사
 3. 제1단계 영세식 : 2일<수> 저녁 8시
모든 예비자는 대부모와 함께 7시반까지 나오세요
 4. 목축성 : 3일<목> 성 블라시오 순교축일 저녁7시
 5. 성시간...4일<금> 저녁 7시
 6. 주일학교 졸업식 : 다음주일 공식미사 때
 7. 어머니 합창단 새 임원 선출 : 회장 양로사
부회장 : 김가타리나, 이레지나 총무 : 김막다레나,
서기 : 정안젤라, 회계 : 김아셀라
- 축 결혼(31일<월> 저녁 7시 합동 혼인, 예식 및 미사)
최재인 씨와 김윤자(아네스)씨
김상철 씨와 김순자(아가다)씨
이인행 씨와 김경자(테레사)씨
□다음주일 12시 서양태(도마)군, 장혜경(아네스)양
□다음주일 1시 서옥봉(스페라노)군, 한은순(안나)양
☆지난주 봉헌금 41,527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확대회의 : 다음주일
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님들 꼭 나오세요
 2. 신용조합 정기총회 2월 9일 오후 7시, 성당에서
 3. 레지오 마리에 단원모집
다같이 성모님의 일꾼이 됩시다.
 4. 본당 신축기금 신립에 빠지지 맙시다.
- ☆지난주 봉헌금 48,950원, 감사합니다.